

11회 PT&Critic에 부처- 김민조, 전다빈 2인전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PT&Critic'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소개하는 신진 작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7년 동안 진행해 온 이 행사를 되짚어 보니 그간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었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또한 있어왔다. 본인도 작가를 직접 선정하였기도 하지만 좋은 작가들을 추천해준 눈이 좋은 기성 작가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어린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가지 충고나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로서의 작가들과 기획자, 평론가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준 많은 필자들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신 후원자 등 모두 고마운 분들이다. 이 행사 이후에도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그 성장하는 과정 안에 함께 하며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이 있었다. 새삼스럽지만, 이 프로그램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을 액티브하게 만들어준 중심축으로 자리잡아왔다는 것이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전하고 싶다. 내년 2019년도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변화를 기획하는, 전환점의 시기로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중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성격을 만들어온 프로그램인 PT&Critic은 어린 작가들의 더디고 어수룩한 이야기들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작품을 보다 가까이서 들여다 봐줄 수 있는 이들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방법을 찾아나갈 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2018년도의 PT&Critic 프로그램은 강석호 작가가 추천한 작가 김민조, 전다빈과 함께 하였다. 다양한 학교 수업에 출강하는 강석호 작가는 평소 회화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지금 막 작업을 시작하는 세대의 회화 경향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고 있다. 이번 참여 작가인 김민조는 인하대학교 회화와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전다빈 작가는 성신여대 동양화과를 수료하였다. 이들의 작업은 형식적으로 서로 반대 지점에 위치한다. 김민조 작가는 일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을법한 이야기를 꼬집어내면서 자신의 상상을 가미한 장면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붓의 흔적은 꽤 역동적이다. 붓의 크기에 따라 사물을 묘사하거나 공기를 그려내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대상의 꼬물거리는 선형을 따라 색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어 작가의 독특한 관찰 형식을 쫓아갈 수 있게끔 한다. 전다빈 작가의 그림은 형태를 묘사하지 않은 채 표현적인 제스처로 일관한다. 이러한 화면은 그림 자체를 순수하게 인식하였던 이전의 태도를 상기시킨다. 추상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로망을 떠오르게도 하였다. 자신이 쓴 글과 책에서 읽은 문구를 기반으로 하여 감정을 끌어내고 이를 형상으로 치환하기를 시도하는 전다빈 작가의 그림에 대한 접근 방식은 회화에서 전형적으로 텍스트화 되었던 요소들을 모두 무시한 채 단지 행위의 과정에서 개입되는 감정이 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이 다루고 있는 회화적 언어에 집중해보았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문자로서의 텍스트로부터 가장 동떨어진 소통 형식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래서 특정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우리는 작가의 입을 통한 이야기, 타자의 시선에서 해석된 이야기, 직관적 감흥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화를 읽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조 작가의 작

품은 기존의 해석 방식을 좇을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작가는 자신이 보아 온 주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도상들을 통하여 일상의 풍경임을 직접 제시하는 객관적 언어를 사용한다. 동시에 각 화면속에서 드러나는 형상들은 시간을 들여 흐물거리거나 빠르게 지나가는 움직임 등으로 이루어진 붓의 흔적들로 가득한데 이는 작가의 경험, 감정 등이 개입되어 만들어진 비현실적 상상의 장면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요소가 되었다.

형식 면에서 전다빈 작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텍스트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가는 회화적 언어에 앞서, 일반적인 텍스트 즉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로서의 텍스트를 차용한다. 그리고 작가가 선택한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한다. 그는 스스로의 심상과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글이며, 작가 또한 자신의 심정을 글로 쓰곤 하고 있다. 그것은 나이브한 접근인 동시에 비논리적이기도 하다. 전시장에 걸린 이 그림들이 어째서 작가가 읽은 글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치환이 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작가 자신도 언어로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논리에 매달리다 보면 저토록 자유롭고 무모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가 싶다. 맘에 드는 색을 그때의 감정에 담아 화면 위에 이리 저리 그어보고 굴러보고 문질러 보는 행위 자체로 만들어진 화면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하다. '속도감을 주려면 비스듬한 직선을 긋는다.' '슬픈 감정을 상징하는 색은 파란색이다' 따위의 법칙들을 여기서 논리적으로 대입하다가는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실험같은 것이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민조 작가의 경우 우리에게 처음에 보여주었던 이미지들이 특정 장면을 조망하는 시선으로 드러내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미세한 시선을 드러낸다. 이전의 작업에서는 전형적인 풍경화처럼 특정 장소와 시간을 지니고 있는 한적한 지역으로 드러났었던 것이 지금은 순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느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화면 속 하나의 요소를 묘사하는 느낌도 있다. 전다빈 작가 역시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조금씩 변화된 작업을 보여주었다. 화면속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병치하곤 하였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이 두개의 요소가 완전히 분리된 형식을 취한다. 결국 의미를 지닌 기호와 그 의미 속 감정을 실은 이미지는 서로 거리를 두고 온전히 그 자체로 회화적 언어를 상기할 수 있을까.